“석굴암 창건, 8세기 초엽 상향돼야”

한동호 교수,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8세기 중엽 석굴암 조성 학설
삼국유사 불국사 창건기 근거
설화 바탕 기록… 의구심 제기

7세기 후~8세기 초 화본 분석
석굴암 조각상 8세기 초 편년
“710년을 벗어나지 않아” 주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 석굴암은 통일신라 김대성이 751년(경덕왕 10)에 창건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석굴암의 조성시기가 현재의 8세기 중엽이 아니라 8세기 초엽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11월 14~15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개최한 불교미술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에서 ‘화본으로 본 석굴암 창건 시기’를 통해 “현재 8세기 중엽이 아닌 8세기 초엽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굴암의 창건 시기를 751년으로 확정한 근거는 〈삼국유사〉 ‘대성효이세부모조’의 불국사 창건 기록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삼국유사〉는 13세기 말에 편찬된 기록이며 석굴암 창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또한 설화 속에 담겨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비판없이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라문화의 전성기인 8세기 중엽에 석굴암 불상과 동시 제작됐을 것이라고 볼만 한 작품이 없으며, 도리어 비견되는 작품들이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조성된 사례가 많은 것도 의문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당시 유통된 화본들을 분석해 석굴암 조각상 중 동일한 화본에 의해 조성된 작품들을 찾았다. 한 교수가 찾아낸 사례는 금강역사상 · 사천왕상 · 감실 보살상 · 10대 제자상이다. 금강역사상의 경우 690년에서 705년 사이에 개착된 용문석굴 고평군왕동 입구 좌우에 부조된 금강역사상과 자세가 일치한다.

석굴암 사천왕상 중 동방지국천왕은 661~663년에 조영된 용문석굴 경선사동의 사천왕상과 본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선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한 교수는 “석굴암 북방다문천왕은 일본 호류지 귤부인주자의 문비에 그려진 북방다문천왕도와 같은 화본이 적용된 사례”로서 주목했다.

제9 감실의 보살상은 일본 호류지 금당 제2호벽의 반가형보살도와 같은 화본이 적용된 사례라고 봤으며, 석굴암 10대제자상은 호류지 금당 제1호벽의 석가정토도에 등장하는 10대 제자 도상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석굴암 조각상과 비교한 작품은 모두 7세기 후반서 8세기 초로 편년된 작품”이라며 “특히 일본 하쿠호시대에 제작된 호류지 전래 작품 중 석굴암과 동일한 화본이 적용된 사례가 집중된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에서 벗어나 석굴암 불교미술을 당시 국제관계 속에 해석하면 석굴암 창건시기는 8세기 중엽이 아니라 8세기 초반을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전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했던 706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이며, 늦어도 710년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열린 불교미술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 민화와 불화의 관계 등 관심도가 높은 기존 미술사학 관련 분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첫 온라인 불교박람회, 누적 접속자 13만 명

11월 5~11일 ‘웰니스’ 주제로
홈페이지서 기획전시 등 운영
2021년 6월까지 컨텐츠 공개



온라인으로 진행된 명상웹컨퍼런스 모습. 비대면 언택트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호평받았다.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11월 15일 폐막했다. 이번 국제불교박람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으며, 10일간 참여업체 160개, 누적 접속자 13만명을 기록하는 등 불교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마인드풀 웰니스(MIDNFUL WELLNESS), 마음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주제로 160개 업체 및 작가의 상품과 작품, 기획전, 릴레이 강연, 명상웹컨퍼런스, 소셜커머스, 서울릴랙스위크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5일부터 15일까지 박람회 기간 중 누적 방문자수 13만 명을 기록했다. 박람회 측은 “기존 불교박람회 연인원이 7만 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확인한 셈”이라며 “불교박람회 관람객의 평균 연령인 50~60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간편한 가입시스템을 구축해 낯선 형식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웰니스산업의 성장 트렌드에 맞게 마음산업 · 명상을 집중조명하고, 온라인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도 성공의 요인이라는 평가다.

특히 ‘끌어안음’을 주제로 한국불교수행, 남방불교수행, 서구의 마음챙김, 티베트불교수행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명상웹컨퍼런스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성과를 냈다. 4일간 총 12명의 연사가 출연한 웹컨퍼런스는 매회 접속자수 200명 이상, 재방송 누적 시청 5721회를 기록했다.

공동운영위원장 정호 스님(불교신문사장)은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불교박람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하는 또 하나의 지향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박람회가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운영위원장 지홍 스님(불광미디어 발행인)은 “많은 온라인 방문객과 준비한 프로그램 접속, 시청 등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칭찬받아야 한다. 반면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나 작가들의 판매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은 차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는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향후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행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입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국제박람회는 2021년 6월까지 홈페이지(www.bexpo.kr/)를 운영, 기획전과 산업전, BAF전 등 참가업체와 상품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릴레이 강연을 비롯한 붓다 스테이지, 서울릴랙스위크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상시 이용 가능하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0불교평론 학술상에 이광준 박사

12월 17일 시상식, ‘붓다의 법담학 연구’ 평가 받아



2020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사진〉이 선정됐다. 수상 저서는 〈붓다의 법담학 연구-불교 상담학 원론에 대한 고찰〉(운주사, 2020)이다. 시상식은 12월 17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상경험도 갖고 있는 실천가로 그동안 〈한국적 치료심리학〉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정토불교의 참회사상〉 등 불교학 저술을 계속 내놓고 있는 학자다.

그는 백상창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장, 한림성심대 교수, 고마자와대학 심리학연구실 연구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교수)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불교에 있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기 위한 법담학의 사상적 기초를 세워놓았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는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만해학회장 한중옥, 불교학연구회장 임승택

불교학계 총회서 회장 선출 잇따라

만해학회 회장 이 · 취임식이 11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성북동 심우장(尋牛莊)에서 열렸다. 전임회장인 전기철 시인에 이어 새로 선임된 한중옥 신임회장은 제주 출생으로서 현재도 서귀포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화가다.

취임사에서 한중옥 회장은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만해 한용운 선생은 지역과 세대와 종교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정신을 길이길이 후손에게 전승시켜야 할 책무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도 11월 14일 동국대에서 zoom을 활용해 비대면 2020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11대 회장인 임승택 경북대 교수를 12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했다.

임승택 교수는 “연임 결심의 직접적 동기는 〈불교학연구〉의 SCUPUS 등재에 있다. 임기동안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불교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불교학연구회는 영문홈페이지 구축, 무진국제학술상 제정, ‘21세기 불교포럼’ 결성을 주도했다. 또 새로 시도된 〈불교학연구 리뷰〉가 호평받았다.

노덕현 기자

백성욱硏, ‘미륵존불시대’ 발표회

고준환 교수 밝해문명과 상생시대 등 고찰



백성욱연구원(이사장 정천구)은 11월 18일 전법회관 보리수회의실에서 11월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의 ‘백성욱 박사와 미륵존불시대’ 주제발표를 통해 백 박사의 삶과 가르침, 미륵존불시대 등을 짚었다.

고 교수는 “백성욱 박사의 주요 가르침은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여래불 염송으로 삼독심을 버리고 견성성불 미륵존불 시대를 연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밝해문명으로 칭할 수 있는 선천광명시대를 열고 앞으로 상생시대를 이끌어 세계문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밝해문명은 인류 문명사를 지혜발달사로 분류한 고 교수가 주창한 것으로 한민족의 해맑은 정신이 세계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인류 창세 최고 문명인 ‘밝해문명(太陽光明文明)’이라는 내용이다.

노덕현 기자

